

의학의 윤리적 딜레마

의학 기술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는 생명과 관련되는 윤리 문제로서 의학의 발달로 생명을 유지, 연장 할 수 있으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되면 과학 발전 자체를 중지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뇌사도 사망인가?

앞서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는 뇌줄기가 살아있는지의 여부로 구분지어집니다 대뇌 등 다른 뇌는 죽었지만 뇌줄기가 살아있는 경우 식물인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뇌를 포함하여 뇌줄기가 죽어있는 경우에 뇌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뇌사는 뇌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말하며 호흡을 유지시켜준다면 완전히 사망한 상태가 아니지만 법적으로 사망한 상태로 구분 합니다 뇌사 상태에서 깨어난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만 뇌사 판정을 받은 남성이 장기기증 수술 준비 중 팔을 움직여 신호를 보내거나 깨어난 보도가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사망인 상태라면 뇌사 상태인 사람을 흉기로 가격하여 호흡을 멈추게 하여도 법적으로 살인죄가 적용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한 법적으로 살인죄가 적용이 안되는 상황이 과연 옳을까요? 꼭 다시말해 뇌사 상태인 사람을 사망하였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임신 중절의 윤리적 문제

낙태는 다른 표현으로는 유산이라고도 합니다 자연적으로 혹은 인위적으로 태아가 모체 내에서 사망한 것을 표현 하는 단어이며 임신 중절은 인공 유산이라고 부르며 낙태죄가 폐지되기 이전에 살인죄도 적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낙태는 일부 경우에서만 허용하였는데 강간 또는 준강간과 같은 범죄로 인해 임신이 된 경우 혹은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경우 등등 이렇게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낙태죄는 태아의 인권을 지켜주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낙태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낙태는 범죄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연 낙태죄 폐지는 옳은 것일까요?

인간복제의 윤리적 문제

인간 복제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태아로 발육되기 전의 세포 분열인 상태인 인간 배자를 복제하여 동일한 한 유전자를 가진 인간을 계속 출산해 내는 것을 말 합니다. 인간 복제는 윤리적으로 옳은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사람들은 찬성 반대라는 입장이 나누어지는데

인간 복제의 찬성 근거로는 첫째 불임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가 갖고 있는 유전병 가지 않는 자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의 대비한 장기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적은 사람을 되 살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유전적 신체적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다 등등이 있습니다.

반대의 근거로는

첫째 유전적 다양성을 위협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둘째 인간 생명의 상품화를 촉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의 고유한 존엄성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연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침해합니다

다시 복제된 인간으로서 윤리적 논란의 발생이 있습니다
과연 인간 복제의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은 옳은 일일까요?